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훑어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토크아보기2021-01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훑어보기] 1월 첫 주 지역언론 5개사 훑어봤다
• 날 짜	2022년 1월 12일

1월 첫 주 지역언론 5개사, 훑어봤다

1. 지역언론 5개사의 신년기획, 단연 으뜸은 국제신문의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 국제신문, 1/3, 1·3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지역언론은 ‘희망’, ‘다시 뛰는’, ‘동력’과 같은 긍정적 단어로 신년기획 기사를 구성했다.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선거를 올해의 사건으로 꼽았고, 5개사 모두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기획기사로 선보였다. 시책사업인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 메가시티 등도 지역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획기사였다.

선거 판세 전망, 여론조사 결과 나열, 주요 시책사업 부각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기획은 국제신문의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였다.

국제신문은 2022년 첫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주인공으로 코로나19 속에서 2년여를 지나는 부산시민을 선택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지난 2년 간 코로나19는 감염 경로, 백신·치료 접근성, 생존에 미치는 영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했다고 말한다. 부산시의회 연구모임 ‘격차 낮추는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한 해당 기획은 19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민을 만나 계층 격차 사례를 전달하고 대응책

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 부산 지역언론 5개사 신년기획		
KBS부산	부산MBC	KNN
부산 여론조사 미래 동력을 찾아서 - 2030월드엑스포 - 세계적 환적항만 부산항 - '블록체인밸리' 부산 - 지·산·학 플랫폼 - 미래형 상생 일자리	2022 다시 뛰는 부산 - 여론조사 - 창업도시 부산 -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 신년 여론조사 희망의 2022 - 월드엑스포와 가덕신공항 - 청년일자리 창출
국제신문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대신협대선 여론조사 부산 수산업 4.0시대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전망 엑스포, 부산의 대전환 미리 보는 지방선거 울산 기초단체장 선거 전망 우리 함께 함 해보십시오!		부산일보 함께 뛰자!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울경 메가시티 원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도시 부산 PK 대선 민심 호랑이해 PK로 돌아온 청년들, 나를 말하다 우리 결의 시민영웅들 지역 정착 공공기관 직원들

△ [참고] 부산 지역언론 5개사 신년기획 목록

2. 차량에 뚫린 마트 외벽, 주차장법 준수여부 점검한 부산MBC



△ 부산MBC, 1/5

지난 달 31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언론은 당시 사고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뉴스로 내보냈다. 단순 사고소식으로 지나가는가했지만, 사고

발생 후 5일이 되던 날 부산MBC는 관련 소식을 첫 순서로 전했다.

주요하게 다룬 건 주차장법 준수여부였다. 부산MBC는 부산지역 28개 대형마트 중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지상주차장이 있는 8곳 중에서 5곳의 현장을 점검했다. 모두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난 마트 역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던 게 확인됐음에도 관할구청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관내 주차장 약 3300여개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뿐이었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3. '장애인 패싱'하는 방역패스 문제 드러낸 부산일보

6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제 23654 호 코로나 5차 대유행 부산일보

“나도 QR코드 찍고 싶은데”... 방역패스 ‘장애인 패싱’

비장애인에 맞춰진 방역시스템 QR 스캔 시각장애인엔 ‘장벽’ ‘쿠브 앱’도 음성 안내 불완전 타인에 폰 맡겨 정보 노출 우려

휠체어 장애인 체온측정 불편 눈치 보며 아예 외출 포기까지

“접근성 보장 강제수단 필요”

6일 오후 2시께 부산 동구의 한 음식점을 훑은 한지에 부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방역패스 인증에 한참 애를 먹었다. 스마트폰의 글자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웠지만 모바일 앱의 작은 아이콘 탓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 설명 기능이 있지만 주변이 시끄러우면 무용지물이고, 일부만 작동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웠다.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방역패스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된 방역패스는 장애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당 문턱에서부터 눈치 밟을 먹어야 하는 장애인들은 QR코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현황
()는 전일 대비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
65만 3792 (+4126)	2만 6300 (+228)	5887 (+49)
부산	882 (-71)	882 (-71)

1만명당 1일 0.5 기준

드러는 장벽에 막혀 외출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일보) 취재진이 이날 함께 확인한 결과 쿠브 앱을 열 때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앱이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QR코드 제한시간(15초)이 초과했는지 여부도 음성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약시 장애를 가진 한 센터장은 “쿠브 앱 실패는 모든 과정에서 큰 제약을 겪고 있다”며 “QR코드를 스캐너에 정확히 갖다 대는 일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쿠브 앱 사용은 물론 개인 정보 노출 우려에도 직면해 있다.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방역패스를 통과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이어서, 병원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공간 이경애 대



장은 “모든 방역시스템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한 뒤,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고려하려는 정부 지침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정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강제력이 아닌 권장 수준이어서, 국가가 제공·배포한 인증 수단인 쿠브 앱조차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한국원질근성평가센터 김병수 소장은 “쿠브 앱은 정부가 장애인 등 정보격차 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방역 대책을 설계한 대표적인 증거”라며 “기존의 진화용 이용만 볼 인증 방식을 개선하는 등 방역패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모바일 앱 개발 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석태하고 SW중심대학사업단 문현주 초빙교수는 “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평가와 규제 조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연경·김용우 기자 byoung@busan.com

6일 부산 동구 초창동 한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인 서양 직원도 도움을 받으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byun9

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내 민감한 생활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불편을 겪고 있다. QR코드와 체온측정 기계를 맡겨야만 시설에 출입하고 일상 겪기 마련까지다. QR코드와 체온측정 기, 손소독제 등이 모두 비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송석태하고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

△ 부산일보, 1/7, 6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면서 QR코드스캔을 통한 방역패스 증명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일보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방역시스템이 비장애인에 맞춰진 탓에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에 주목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앱’이 장애인을 위한 음성설명 기능을 제공하곤 있지만, 그 안내가 불완전하다 지적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도,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음성안내가 부재했고, QR코드 제한시간(15) 초과여부도 음성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약시 장애를 가진 센터장 인터뷰를 통해 QR코드를 생성해도 정확히 스캐너에 갖다 대는 일의 어려움을 알렸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4. 대선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정책, 주식시장 영향 알아 본 부산일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 운동 제약과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 맞춰,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특정 갤러리,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정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흐름 속 1월 첫 주 반향을 일으킨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었다.

‘포폴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중증 질병, 희귀질병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서 의미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해당 공약이 일으킨 반향에 주목해 후보 유불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건강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해당 공약과 관련해 나온 기사가 ‘탈모치료 관련 주식 일제히 상승’이어서 아쉬웠다.

“공약 검토” 한마디에 탈모치료제 시장도 뚝

“건보 적용 검토”에 탈모인 반색 탈모치료 관련 주식 일제히 상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탈모 치료제를 비롯한 국내 관련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탈모 치료제가 주목받자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6일 미국의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의 제네릭(복제약)인 ‘모나드’를 판매하는 JW신약은 코스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70원(3.29%) 오른 5340원에 거래를 마쳤다. JW신약은 장중 10.64% 오른 572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탈모 샴푸와 헤어 케어 제품 등을 제조

하는 TST필리온 역시 코스닥에서 전일 대비 305원(29.76%) 상승했다. 모발 이식 전문 업체를 자회사로 둔 메타랩스는 코스닥에서 95원(7.95%) 오른 1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탈모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 치료제 시장은 1200억~13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를 보면 2020년 탈모 환자는 23만 3000여 명으로, 2016년 21만 2000명보다 약 10% 늘어나는 등 탈모 관련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의 주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제 품이다. 이들 제품을 소비자가 한 달간

복용하는데 각각 5만~6만 원, 3만~4만 원가량 든다. 중년층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년층들도 최근 탈모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이 크게 환영 받는 이유다.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부작용이 적은 탈모치료 신약을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1개월 또는 최대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도록 개발에 성공하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함께 탈모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 부산일보, 1/7, 2면